

## 인문학 연구와 연구도서관

김 희 란

〈인제대학교도서관 사서〉

이 글은 1994년 6월 25일 “The Humanistic Research Perspective in a Technological Age”라는 주제로 열린 미국도서관협회 연차회의에서, Ross Atkinson이 발표한 논문 “Humanities Scholarship and the Research Library”를 번역한 것이다. 원문은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39(1) pp.79-84에 게재된 것이다.

이 글을 쓴 목적은 인문학 연구(humanities scholarship)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또 연구도서관들이 얼마나 인문학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함이다.

여기서 어떤 이론이나 주장을 역설하기보다는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논의함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 더 깊이있는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도서관들은 장차 어느정도 인문학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을까? 여기에 관한 답을 찾기위해 먼저 도서관의 관점에서 본 인문학의 정의가 필요하다. 정보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고, 또한 적어도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본매체

가 출판물(publication)이라고 보기 때문에, 출판물과 관련지어 인문학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도서관 이용자인 교수들이 생산하는 학술 문헌에서 우리는 (a)참조문(reference)과 (b) 인용문(citation)간의 간단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참조문이란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언어를 사용하여 어떤 주제나 개념을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레퍼런트(referents)는 인용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개념을 말한다.

reference라는 용어는 원래 기호와 그 기호가 가리키는 개념과의 관계를 말한다

한편, 인용문은 구체적 내용의 참조를 말하며,

어떤 특정문헌, 혹은 특정 작품을 지칭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정보를 주는 참조문과 구체적인 특정 문헌을 지칭하는 인용문 간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학술문헌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 보자.

첫째 과학기술문헌(scientific publication)인데 과학기술문헌속의 참조문과 인용문은 서로 다른 대상영역에 속한다. 어떤 개념이나 대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방법을 달리 한다. 참조문은 자연과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백과사전적, 일반적 지식을 말한다. 반면 인용문은 바로 그 참조문을 근거로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로 안내한다. (물론 인용문에서도 일반적인 정보를 다룬다.) 과학자는 자신이 다룬 주제에 사용된 참조문을 다른사람들이 훑어보도록 제시할 뿐이다.

둘째, 인문학 문헌(humanities publication)인데, 원문의 내용을 주된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자료를 말한다. 더 정확히 말해 인문학에서의 참조문과 인용문은 둘 다 같은 부류라고 보면 된다. 인문학 연구자는 글을 쓸 때 인용문을 그저 도움을 준 참고문헌 정도로 보는게 아니라, 그 인용문을 연구자의 주관적 입장을 개입시켜 꼼꼼히 들여다 본다. 그러므로 사서가 학문으로서 인문학을 정의할 때 인문학은 참조문과 인용문이 동일시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과학(자연과학과 행동과학 포함)은 참조문과 인용문이 다르다. 이제 참조문과 인용문의 간단한 차이점을 발견하였으니 연구도서관이 인문학 연구를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 전거통제(Authority)

인용문은 어떤 사람이 생산하거나 창작한 저작을 인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작이 다루고 있는 내용과 저작을 만든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다시말해 저작한 사람의 위치(권위)가 그 저작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적합한가를 말한다.(인문학 연구에서 작품에 대한 고증, 기술, 평가는 기본적인 것이므로 하나의 문헌속에 참조문과 인용문이 동일시 되는 특성을 가진 이 학문은 따라서, 서지적 전거(bibliographical authority)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개별 저작들끼리의 상호관계, 저작과 저자와의 관계 즉, 누가 무엇을 썼고, 누가 다른 무슨 저작을 만들었는지를 연결시키는 방법은 모든 인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시대의 연구도서관에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비싼 서비스는 전거통제(authority control)이며, 이 중요한 정보원은 그저 책이름을 나열하기보다는 그 책의 취급분야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피는 역할을 한다. 연구도서관이 제공하는 이와같은 서비스의 주된 수혜자는 인문학분야이다(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인문학 연구자들이 연구시 주제탐색에 사용하는 단어의 절반은 individuals과 characters 같은 단어 라고 한다). 전거통제는 정보소스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료정리 업무에 드는 비용이 감소되고 있긴하지만 전거통제를 계속 유지하거나 더 증가시킬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비록 이용자, 경영자 또는 사서가

그것에 대한 인식을 거의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구도서관이 선거통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힘써 노력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요즘 온라인을 개발하는 기술자들이 선거통제의 본질과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트워크 디자이너들은 과학문헌의 색인을 만드는데 성공한 후 전문 데이터베이스의 자동색인이 머지않아 인문학분야에서도 충분히 문헌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기술봉사 사서들은 한 권의 책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기전에 선거확인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만약 입력시 선거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 책의 중요성은 잘 파악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인문학 연구를 위해서 도서관은 온라인 서비스환경보다는 선거통제 작업이 훨씬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Cornell University Library의 P. 그라함은 선거통제를 하게되면 네트워크 서비스디자인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것 이라고 한다.)

서지전거의 다른 면인 인증(authentication) 역시 선거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의 책과 저자가 처음 의도한 내용의 책을 가능한 가까이 일치시키는 일이다.(역자주: 만약 저자의 의도와 정반대인 주제영역에 포함시키면 그 책은 이용자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한 권의 책을 어느 주제 영역으로 분류할 것인가는 서지통정(bibliographical control)에 좌우된다. 그것이 바로 인증이고 그 일은 과거부터 해온 도서관의 임무였다. 우리는 그것을 재충전해야 한다. Online 시대에는 책에도 변화가 있다. 그러나 연구도서관은 원문(archive materials)을 그 권위를 잃지 않은 상태로 준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사용하는 이들이 안전하게 권위가 보증된 원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료선정의 중립성(Neutrality)

한 저작에 대한 참조문과 인용문이 동일한 학문의 연구는 많은 다양한 시각과 동기에서 성립된다. 개별화와 다양화를 존중하고 분등우는 자세야 말로 진정한 인문학적 모습이라 하겠다. 어떤 시스템도 인문학자가 한 작품을 놓고 어떻게 해석 평가하는가, 또 작품분석을 위해 보조 수단으로써 다른 작품을 선정하는것에 대해 통제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토마스 쿤(Thomas Kuhn)의 다음의 주장은 타당하다. 즉 과학은 동일한 패러다임 영향 아래 움직이는데 반해 인문학(nonscientific scholarship)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정상과학(normal science)”에 상응하는 “정상 인문학”이라는것은 없다는 것이다. 인문학은 하나의 통일된 세계관도 없고 연구영역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진리 법칙 따위가 없다는 것이다. 인문학이 하는 일은 다양한 작품(저작, 작곡, 조각, 회화)을 놓고 그것의 중요성이나 질을 재고 또 재는 것이다. 이 학문은 단선적으로 발전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우리가 20년 전보다 DNA에 관해 많이 알게 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20년 전 우리가 접했던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보다 잘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셰익스피어 연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의 작품의 질과 지혜를 시대적 가치와 감성으로 계속적으로 재해석하여 인간

정서에 새로운 전망을 주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전통과 유행이라는 두개의 매개변수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가치로써 저작의 질과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론적인 중립(methodological neutrality)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도서관은 최근 십수 년동안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는 정해진 법이 없다는 입장을 지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진전은 장서구성의 책임이 교수들로부터 도서관으로 옮겨졌다는 점이다. 교수들이 책을 선정할 경우 자신이 친숙하고 좋아하는 작품만을 선정할 터인데, 단지 그런 방법보다는 도서관에서 장서선정에 책임을 맡음으로써, 그의 방법을 적용한 장서개발을 유도한 점이다. 하지만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이용자 요구중심으로 장서구성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관점의 장서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능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출판(electronic networked publication)이 이용자에게 다양한 출판물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구도서관이 지금까지는 자료의 가치 판단방법에 대해 방법론적인 중립의 입장을 지켜왔지만 또 다른 중립마저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즉 대상중립(object neutrality)이라는 것인데 앞의 것보다 훨씬 문제시된다. 대상중립이란 문학 연구자들이 인간의 창작물은 모두 인문학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또 어떤 연구자는 어떤 저작은 더 많이 출판해야하고, 어떤 저작은 아예 발표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런 주장들 때문에 연구자들은 저자

의 의도가 들어간 저작은 무엇이든간에 연구대상이 된다고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창작물도 연구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정 지속시키고, 어떤 것을 버릴지 의문이 되어버렸다.

만일 과학에서처럼 인문학이 오래된 비평문헌 따위를 제적하여 장서의 양을 줄일 수 있다거나, 혹은 초창기 출판된 문헌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summary)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인문학에선 이것이 불가능하다. 출판된지 오래된 문헌을 없앨 수 없다. 왜냐하면 비평문헌은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원작만큼 또는 원작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헌은 해당주제분야의 史的연구에 도움이 된다. 단지 이런 이유로 역사학 관계자료는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가장 비싼 “주제” 분야자료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악명높은 자연과학(natural science)보다 그 비용이 훨씬 많이 들 것이다.

요약문은 인문학에서는 기피된다. 과학에서는 연구 결과물을 요약하여 교재에 실을 수 있어 더 이상 원문을 참조할 필요가 없지만 인문학에선 대체로 개요(synopsis)를 수척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참조문과 인용문이 동일한 특성 때문인데, 인문학에선 정보를 직접 “보아야”지 그냥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핵심은 원문에서 무엇을 참조하는가가 아니라 원문을 어떤 방법으로 언급하고, 원문 참조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가이다. 스승과 제자, 인문학의 각 연구세대들은 원문에 대한 재해석에 책임을 느끼며, 그 결과 연구자

자신과 동시대의 다양한 가치가 반영된 원문에 대한 많은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원문을 오랜동안 보존 해야한다.

연구도서관은 자료보존을 도맡아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출판물을 하나 하나 다 보존할 수는 없다. 문헌에 대한 요약문을 만들수 없기 때문에 꼼꼼한 선정을 해서 중요한 것만 보존해야한다. 따라서 대상중립을 지키기가 힘들다. 인문학에서 방법론적 그리고 대상중립에 근거해 보존과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같은 선정을 뒷받침할 만한, 널리 받아들여지는 고유한 가치척도가 없다. 이런 사실은 보존을 위한 선정에 특히 중요하다. 선정과 보존은 인증처럼 도서관의 아주 오래된 기능이며 그 어느 시기보다도 인문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선정(자료를 수집해서 유지하는 것)은 언제나 도서관 봉사의 기본이었다. 많은 새로운 고도의 정보 기술이 도입되고 있지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일을 대신해 주진 않는다. 자료의 디지털화(digitization)가 자료를 더 많이 보존하고 자료 접근에 대한 기회를 더 향상시킬 수는 있겠지만, 디지털화조차도 모든 것을 수집하고 보관하기에 안성맞춤이거나 수용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영성하고 체계가 없는 자료 수집과 보존은 결국은 일부 인문학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서지적 혼란(bibliographic congestion)을 초래할 것이다. 미래에 자료의 활용정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안전하게 억지로라도 보존하려는 충동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자료를 줄이는 일-엄격히 자료를 없애는 일-은 받

아들여야 하고, 줄이는 일을 도우되 이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다른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지 자료를 줄이는 일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인간의 모든 표현들은 기술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또한 이러한 작업에 국내의 모든 연구도서관들이 협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틀림없이 경제적으로 실행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문제는 도서관이 인문학자료가 마구잡이로 보존되거나, 손실되는 것을 방관만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 인문학자들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확고히 선택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 파생문헌(Derivation)

사회는 인문학을 그다지 중요시 하지 않는다. 사회는 과학의 부산물이나 미술품의 가치를 훨씬 더 중시한다. 인문학은 학술사회 밖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모든 활동을 시장경제원리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될 법하다. 교실안에서의 인문학은 훌륭하고 가치있는 것이지만 사회에서 배워야하는 인문학(역자주: 전시회, 음악회 등에 가는 일)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애로를 겪는다. 인문학에서 생산되는 공식 출판물(formal publication)은 이윤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출판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지식을 다루는 인문학의 출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대부분은 대학 출판사

가 떠맡는다. 그러나 시장경제원리에서 수요가 충분치 않으면 대학출판사라 할지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자로서 연구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문학출판물의 주요 판매시장은 연구도서관이 될 때가 많다. 대학출판사, 주요 학회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은 도서관에서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사기 마련이다. 도서관은 그같은 자료를 반드시 소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지 분명한 요구가 있어 사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은 어떤 자료가 이용되고 어떤 자료가 이용되지 않는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구입하는 것이다. 또 다양한 자료를 모음으로써 이용자들을 더 많이 도서관으로 끌어 들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인문학을 중요시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는 어떤 한 사람이 이미 한 말 혹은 이미 표현한 것들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새로운 것의 발견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대상을 두고 그것의 의미나 가치를 반복해서 재해석함으로써 “지식의 지형도(map of knowledge)”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킨다.(Fabian 1990)

이 말은 인문학을 열등한 것으로 느껴지게 한다. 가끔 대상에 대한 연구보다는 새로운 연구방법의 시도 등과 같은 연구 그 자체에 몰두함으로써 원문에 매달리는 고통으로부터 애써 도망가려 한다. 이런 몸부림은 최근에 나온 문학이론에 관한 몇몇 저서에서 볼 수 있는데 여전

히 인문학 본류와는 거리가 있다.

원문에 대한 과생문헌이 거론이 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문제이다. 인문학은 아무리 발전한다하더라도 항상 가르칠 것이 있는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과 학문은 떼어 놓을 수가 없다. 인문학의 목적은 어떤 저작이라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과학과는 매우 다르지만 우리 사회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이제 마지막 논의점에 왔다. 서지란 무엇이며 도서관과 정보서비스란 무엇인가? 그것은 원문으로의 안내(reference)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모든 도서관은 인문학적 활동을 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사서가 하는 일 즉, 연구자들이 특정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일과 인문학 연구자들이 책을 출판하는 일 즉, 사서가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이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할수 있도록 저술하는 행위, 이들의 차이점은 기준과 세련됨의 차이이지 인문학 활동을 하는 행위로는 둘 다 같다. 둘 다 같은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보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문학도 서지학(기록정보)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한다. 사서는 (사회)과학정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인문학의 풍부한 이론적 작업과 그것의 서지적응용으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의 앞에서 나는 연구도서관이 인문학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긴 했으나 이제 그런 질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도서관은 반드시 인문학을 지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서관 그 자체

가 인문학이거나 최소 인문학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도서관의 지원 여하에 따라 죽거나 살거나 하진 않는다. 다만 이 둘은 하나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것이므로 하나가 가는 길에 그 나머지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도서관직 특히 과학도서관 사서에게 한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물리학을 담당하는 사서는 그 자신이 곧 물리학자는 아니다. 사서의 관

심대상은 물리학이 아니라 물리학의 문헌 영역이다. 물리학자들은 사서를 인문학과 관계있다고 본다. 과학은 인문학에 의존하고, 인문학 없이는 과학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없다.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도서관은 인문학을 키워나가야 하고 또 그러할 것이다.

### 原 稿 募 集

〈圖書館文化〉誌는 1,000여 단체회원과 1,300여 개인회원의 대변지로서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꾸미고자 회원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내용 : 가)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나) 도서관계의 국내외소식, 회원人事소식  
           다) 도서관과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라) 기타

2. 보내실곳 : 11371-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60-1

전화 : 535-4868 · 595-3753, FAX : 535-5616

3. 기타 : 가) 원고를 보내실 때 약력과 사진 1매(“도서관문화”자료실 영구비치용)를 첨부 바랍니다.

          나)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를 드립니다.

도서관문화 편집실